

10월 출생아수, 또 2만명 밀 '역대 최소'

출생보다 사망이 늘면서 9만4000명 자연감소 1981년 통계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 기록해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이 늘면서 9만4000명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42명(-8.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1~10월까지 출생아 20만명 밑으로...합계출산율 0.72명 예상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2만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 13명(0.1%) 늘었다.

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3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보다 1만7268명(8.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0월 출생아 수가 21만3309명으로 20만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그마저 넘지 못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달 중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중위추계 기준)을 0.72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월까지 사망, 출생 앞질러 9.4만명 자연감소

10월 사망자 수는 3만79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3명(3.4%) 증가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1889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85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9만4270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4건(1.0%)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후 증가를 반복하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10월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7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증가했고,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는 감소했다.

이혼 건수도 전년보다 450건(6.0%) 증가한 7916건으로 집계됐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 보다 0.1건 늘었다.

이혼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하다 7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후 10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슬비기자



고흥 봉래파출소, 연말연시 협력단체 합동 순찰 실시

고흥경찰서 봉래파출소에서는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치안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우범지역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경로당지도사와 교통안전리더 교육 실시

순천경찰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치안을 전개하기 위해 경로당지도관리사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분회 사무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리더교육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소방, 연말연시 화재 안전관리 당부

담양소방서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해경, 해상밀수·밀입국 취약지 합동점검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지휘관이 직접 밀항, 밀입국 등 해상을 통한 국경범죄를 대비해 관내 밀입국 취약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보훈청, 연말한파속 독거 국가유공자 위문 실시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은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22일 광주 광산구 지역에 홀로 거주하시는 6·25참전유공자 자택을 찾아 난방시설과 건강상태 점검 등 현장위문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최근 나주시 이화영아원을 방문하여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박민호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서선욱기자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추모공연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2023 돌아가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162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추모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선균 번개탄 흔적 사망 소식...누리꾼 '충격'

차량 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배우 이선균(48)씨가 차량 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남편이 유사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돼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최근 마약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3차례 경찰에 소환된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강남 룰살롱 실장 A씨(29)의 진술밖에 없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뭘된 것 한 건 맞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 갈라지는게 충격이었나보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않겠냐 싶어서 살면 되는 건데", "전국민 앞에서 전사된 상황이라 이해는 간다" 등 이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4



"정명석, 동시에 여신도 100명 추행" 주장 제기

건강검진 핑계로 추행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여 명의 여신도를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불러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JMS 피해자 모임 '엑소스터'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신이 조사한 정명석 총재 범행에 대해 밝혔다.

김 교수는 정 총재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추가로 고소한 피해자가 18명 더 있다"고 했다.

이어 "18명 중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를 본 3명이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 사건도 조만간 기소돼 1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미성년자 피해자) 3명 중 일부는 아직도 미성년자"라며 "더욱이 이들 세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둔산 호텔에는 정명석을 위한 특정 호실이 있다"며 "그곳에서 3명의 피해자가 같은 날 목을 짓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그날 저녁 정명석을 면담한 여신도가 100명이 넘고, 그들 모두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이 줄줄이 그 방에 들어가면 (정명석이) 방을 검사한다. 뺨를 맞춰준다 등을 주장하면서 여신도 몸에 손을 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 총재에게 모녀가 추행 피해를 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추가 고소인 중 1명은 부모님 모두 JMS 신도"라며 "그녀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어머니께 혼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어머니 말이 '나도 젊은 시절 (정명석)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해주셨는데, 난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핑지푼파를 일으키려고 하나'라고 말했다"라며 "이런 말 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가?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JMS) 사람 중에는 이런 신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총재 측은 대검지방법원 형사 1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재립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고 자칭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선욱기자